

# 광주 민간공원 특혜의혹 수사 마무리

檢, 정종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 기소

“이용섭 시장 연관 증거 찾지 못해”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 단계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시 전 공원녹지과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 광주시 부당한 특정감사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다른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C건설이 민간공원과 관련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당일 윤 위원장에게 경쟁업체인 D산업의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D가 시장님의 뜻이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의 업무일지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D산업의 서류를 집중 지적한 것에 비춰 D산업을 탈락 시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D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했고, 정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2단계 특례사업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건설은 2018년 5월 이후에 발행된 기업신용평가등급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이를 발견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제안심사위원회 업무 방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위가 2018년 12월 10일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정 부시장과 A씨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심사위를 개최하고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13일 제안심사위 2차 회의를 개최한 후 이들은 2차 회의 상정 안건 중 ‘유사사업설직, 공원조성비용’ 항목을 자체 평가하는 보고사항으로 임의 분류해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차 회의의 제안심사위에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3차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정 부시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기존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시에서 모두 책임을 지겠다. 직을 건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윤 위원장은 ‘정의의 문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감사에서 C건설의 감점사항을 지적했다면 순위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 이후에도 점수 변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감독 권한 이용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 A씨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광주도시공사가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자 공문을 보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기로 협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광주도시공사가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자 공문을 보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기로 협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부시장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제안심사위를 다시 열 수도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 ‘감사위의 조치 요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위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윤 위원장은 정 부시장에게 ‘도시공사를 설득하고 만들으면 감사청구해서 정리하면 될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 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졌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 8일 민간공원 2 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함께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소했다.

◇ “이용섭 시장 연관성 못찾아”

반면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이 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님의 뜻이다’고 말했고,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이 시장과 정 부시장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즉 검찰은 이 시장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 동구, 관내 공공기관에 힐링 건강계단 조성

광주 동구가 일상 속 걷기 실천으로 걷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과 보건소, 동구문화센터 등 관내 공공기관에 건강계단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중앙계단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힐링&건강’을 주제로 숲길, 초원 등 자연을 실사 출연한 벽지를 벽면 전체와 계단에 부착해 걸으면서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도록 조성했다.

동구보건소와 동구문화센터는 주민,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계단과 벽면에 꾸몄다.

## 서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접수하세요

광주 서구가 여성청소년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키로 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2016년부터 시작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물지원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부터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2019년 월 10,500원(연간 126,000원)에서 2020년은 월 11,000원(연간 132,0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다.

## 남구 관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이용자 큰 폭 증가

광주 남구 관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 제도를 활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 소유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1기분과 2기분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특히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할인이 주어지며, 3월과 6월 등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 북구,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 점검

광주 북구는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건축·전기·소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총 17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배선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여부,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인전성 여부 등이다.

## 신창동이 날은 가야금 연주단, 프로무대서 공연

가야금 양상을 ‘휘현’이 9일 저녁 7시 30분에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아름다운 국악콘서트’ 공연을 실시한다.

휘현은 한인선 단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팀. 한 단장을 제외한 단원들은 2015년 신창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흥겨운 가야금’ 강좌에서 만났고, 그동안 같은단을 실력을 이날 프로무대에서 선보인다.

휘현 단원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속 대마리〉 등 전통 국악 곡부터 애니메이션 OST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날 공연에서 들려줄 예정이다.

임택택 기자

호남신문 공인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주로 유학간 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도립 전남학숙이 31일까지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7명으로 남

자 80명, 여자 27명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 및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립 전남학숙은 월 11만 원의 저렴한 입사비로 1일 3식, 숙식을 제공하고 통학버스를 1일 9회 무료 운행한다.

방학 중에는 개인 및 단체 해외 문화 텁방을 지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연간 약 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회순=박순철 기자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